

정보화 선진국 걸맞는 정보보호마인드 중요



안철수 _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은 태생적으로 기술, 지식집약적인 특성이 있어야 하며, 차세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를 연구하고 상품화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나 벤처기업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정부가 벤처기업과 비벤처기업으로 확실히 선을 그어놓은 나라도 드물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지식과 기술의 글로벌 리더가 아니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최근 수년간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산업 정책을 펴야만 했던 것이 국가정책의 기초(基調)가 아니었나 싶다.

정보화, 디지털화가 벤처산업의 성장 엔진이라면 정보화 역기능, 사이버테러 등은 벤처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온라인 또는 와이어리스(Wireless) 디지털로 얽힌 인터넷 상에서 전문화 시대에 걸맞게 벤처기업의 대부분은 기업의 핵심 정보를 IT도구를 이용하여 개발, 보관, 전달,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난 1월 인터넷 대란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이버테러로 배운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벤처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R&D 투자를 줄이지 않고, 쌓은 수많은 지식 정보 및 솔루션들이 테러와 해킹으로 인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 변조, 유출된다면 힘들게 캐낸 금가루를 구멍 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매년 당하고 있는 작고 큰 사이버테러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 피해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은 정보화 수준과는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설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정보보호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긴 하지만, 사이버테러를 받을 때 거의 무방비 상태에 속해 있는 사각지대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들이다. 우리 정보화 기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보호격차의 수준이 벌어지고, 인터넷 서비스 등을 대부분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디지털 정보화 혜택이 큰 만큼 테러의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사이버 피해의 특성상 개별적인 보상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를 실천하려고 한다면 인적, 물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제는 정보화 선진국에 걸맞는 정보보호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이고 단순한 몇 가지 조치로써 대부분의 테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웃소싱한 주변의 지원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설비에 대한 확인과 선별적 이용 습관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전한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수 많은 정보 거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선진국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